

그린스마트학교 선정관련

안산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회의록

<간담회 개요>

- ▶ 명 칭 :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관련 안산초등학교 긴급 학부모 간담회
- ▶ 일 시 : 2021. 11. 2.(화) 10:00~12:0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 ▶ 참석자 : 16 명
 - 간담회 주재 : 이경선 의원
 - 참석 부서 : 교육지원과 2명
 - 참여 주민 : 10명
 - 참석 기자 : 3명

회 의 록

(10:00 간담회 시작)

(이○○ 의원) 안산초등학교 주민간담회를 시작하겠음. 개별 녹취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먼저 교육지원과의 현황 설명 요청함.

(김○○ 과장) 교육지원청의 공식적 자리가 있을 시 참석하겠으며, 주민의견의 청취 사항에 대한 역할과 전달을 검토해 보겠음.

(이○○ 의원) 앞서 연희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안산초도 현황 파악이 필요하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음.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부모이므로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해결이 필요한 자리로 학교와 주민, 학생, 학부모 간 충분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자리에서 해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충분히 의견을 내주면 교육청에도 의견을 전달할 것임.

(주민 1) 예비 학부모 등 대상으로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말이 계속 바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이 필요함. 그린스마트 안산초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음. 2020.9.29. 제출된 안산초 그린스마트 선정과정 중 수요조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정성 평가는 교장 재량으로 알고 있음. 홍제1구역 재개발 설정으로 2023년에 병행 추진 희망한다고 하나 푸르지오는 현재 시공중이며 2022년 입주임. 그린스마트학교 자체가 설립 불가능한 상태임

(주민 6) 스마트 사업은 공간혁신 사업으로 공간에 대한 변화는 아이들 교육 과정 변화로 학부모와 협의된 부분이 없음. ‘그린스마트’의 비전만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음. 각 교육청에서 11개씩 후보 학교를 정량, 정성 점수차에 의해 제출. 40년 이상 노후가 있으면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아이들 이동,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면 학부모 반대가 없었을 것임. 가장 큰 문제는 안전진단이 시행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나, 학교 안전진단도 없었음. 대부분 육안 검사만 실시하고 학교는 3중시설로 정밀안전진단 의무 사항이 아님. 안산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건물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나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안됨. 서울 모든 초등학교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도시계획과 함께 추진을 고려해야함. 지금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 채 교육권을 보장해야 함. 아이들을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맞는지, 혜택을 따져봐야 함. 교육청과 학교는 이 문제를 학부모의 편을 가르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문제해결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음. 안산초 예산이 23억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 미확보시 민간 자본 투입 이야기가 있음. 이익 창출 문제나 사업자 변경시 누가 책임을 지며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음. 학교에 다른사람(제3자)의 개입

은 바람직하지 않음. 큰 틀에서 답변 희망함. 그린스마트 철회를 희망함. 철회를 원한 경우 어떤 순서에 의해 받아줄 수 있는지도 답변 바람. 교장의 자율성 명목하에 학부모 의견이 교육청에 전달이 안됨. 교장 1명이 학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 의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개진 요망함.

(주민 5) 선정 절차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없는 전임 교장의 독단적 배점표가 제출되었음. 교육청 자료에도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안함. 교육청의 모니터링이 필요했음. 학부모의 의견없이 그린스마트 선정되었음.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니 반대 서명지를 가져오라고 함. 원하지 않은 사업은 철회하는 것이 학부모 의견임. 원점으로 사업을 돌린 후 학부모 설득 절차가 필요함.

(주민 4) 학부모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님. 기본적으로 학부모 의견수렴을 안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무효화시켜야 함.

(주민 3)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잇는 상황에서 서대문구 학교 3곳을 동시에 개축하는 것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음

(주민 5) 동시에 시행하니 학생들이 갈곳이 없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임

(이○○ 의원) 제일 중요한 의견수렴이 빠져있는 것이 문제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의견수렴과 세부추진 계획을 진행할 곳이 있어야 함. 실무추진단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됨.

(주민 6)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모듈러를 짓는다고 함.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학부모 의견없이 학생들에게 1인1패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도 함.

(이○○ 의원) 거시적으로 큰틀이 있어도 미시적인 내용이 필요함. 이것이 학부모 싸움이 되면 안됨

(김○○ 과장) 개축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학부모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의 문제가 있으니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미가 어떤건지 알게됨.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어느정도까지 내용을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음

(주민 4) 우리의 요구는 원점으로 돌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달라는 것임

(주민 6)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이러한 일방적 선정에 교장의 권한이 있었음. 교장의 뜻이 아니라 학부모 전체의 뜻이 중요함. 아이들의 안전

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함.

(이○○ 의원) 스마트학교의 취지는 좋으나, ‘어떻게’가 잘못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함. 학부모와 소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함.

(주민 6) 40년 이상은 리모델링, 50~60년 이상은 개축대상임. 학부모들은 세부계획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를 원하고 있음

(주민 7) 교육청에서 확실한 답을 해줄거라 기대했는데 아쉬움.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고, 스마트기기들을 너무 일찍 접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전면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준다고 하니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진행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함.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반대함

(주민 6) 스마트기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진적이 없음. 세부적인 것을 학부모가 지적하고 교육청이 인지하는 상황임.

(주민 5)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있지 않음

(이○○ 의원) 연회초의 사업은 어떻게 철회되었는지 답변바람

(김○○ 과장) 교육청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학교측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철회됨

(주민 4) 학부모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 홍보도 되지 않음. 예비초 부모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측에서 제공했으면 좋겠음. 그린스마트 사업은 처음부터 의견수렴을 시작하여 결정이 필요함.

(이○○ 의원) 답은 현장에 있음. 교육정책 관련 교육지원과에서 중립적 의견을 안산초에 정확히 전달이 필요함. 주민 의사를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음.

(주민 5) 교육청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지만, 반대 자료는 충분히 올려져있지 않음. 설문지가 중요함.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지는 원하지 않음. 단점이 명시되어 있는, 협의를 해서 설문지 제작이 필요함. 6학년 학부모보다 예비초 학부모가 훨씬 중요함

(주민 10) 찬반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제공이 필요함. 그래야 강하게 어필 할 수 있음.

(주민 6) 안산초 공사 시작 이후 민원 발생시 공사기간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 아이들을 위해서 협의가 중요함. 이 사업은 서울만 반대함. 다른 지역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고 싶은 학교만 참여한다고 함. 교과서가 메인이 되고 디지털화가 부수화가 되어야

함. 학부모는 선생님을 인정하는데 교육청은 선생님을 미인정.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는 모든 아이에게 있어야 함.

(주민 10)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민간자본 유입 반대함. 스마트 교육의 단점은 미리 체험하였음. 초등학교는 사회성이 필요함.

(이○○ 의원) 공론화 되지 않은 사업은 불협화음이 발생함.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실이 바뀌게 없음. 학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함. 큰 틀에서 공론화 되지 않음. 그린스마트에 대한 내용도 바뀔. 아이들 안전 책임 소재가 전혀 없음. 명확성 제시가 필요함. 행정상 착오에 대한 반성도 필요.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 공론화가 필요함. 큰 예산의 사업이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안타까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가 정말 필요한가 공론화가 필요함. 교육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며 대들보를 갖춰놓고 시설보완의 공사가 필요함. 주민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 정책보좌관에게 전달하겠음. 교육지원과는 중립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교육청, 교육부에 전달이 필요함.

(12:00 간담회 종료)